



정성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나눌 앞둔 20일 강진군 강진읍 여성회관 조리실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원들이 모여 추석명절 차례음식 나눔을 위해 동태 전을 만드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회원 80여명이 모여 이를 동안 만든 전과 송편, 소고기 주물럭, 식혜 등은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 120명에게 전달되는데 명절인 설과 추석에 계속 이어오고 있어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해남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 달라진다

민선 7기 상담관제 운영 등 전면적 개선 추진 접수부터 처리까지 기간 단축 고객만족 도모

해남군 민원행정이 전면적 개선을 통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 체계로 확 달라진다.

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각종 민원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원스톱 민원행정 종합대책 토론회를 갖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고객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원스톱 민원행

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들과 토목·건축설계업체, 언론, 민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고객중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군 원스톱 민원행정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문자안내 서비스, 민원보상제 운영, 야간 민원실 운영 등 16개 신

규시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기존 민원업무 또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거나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확대 실시된다.

특히 복합민원 사전 상담시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군은 민원 1회 방문접수 및 상담진담창구를 지난 7월 25일부터 종합민원과 내에 설치하고 민원상담관이 복합민원 등을 상담하고 있다.

민원상담관은 민원인을 대신해 인허가 관련 실과소의 검토의견을 취합해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각 실과 인허가 담당자와 민원인의 직접 상담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복합민원의 경우 개발행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개별 방문해 상담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관을 통해 한 번에 민원 상담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운영과 인허가 정보시스템도 홈페이지에 구축해 군민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보완하는 등 종합대책을 확정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명원관 군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이 갖춰지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한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선 7기 해남군정이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체감할 수 있는 고객 만족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병용 기자

대불국가산단 업종 다양화의 길 열려

영암군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비 350억 확보

영암군이 환경부에 건의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불국가산단의 업종 다양화가 가능하게 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낙동강 유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국가산

단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를 건의해왔다. 그 결과 2019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향후 4년간 국비 35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불산단이 선박블럭 제조업으로 편중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 대불국

가산단에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번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앞으로는 산단 내 화재, 천재지변 등 각종 오염사고 발생시 화학물질 확산방지 등 주변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완충 저류시설은 낙동강 폐놀 유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등 유출사고 발

생시 환경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염물질 차집 설비로 대불산단에 입주할 업종을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한편 1996년 준공된 대불산단은 국내 정유사의 저유시설 4개소 등 각종 화학물질이 다량취급되고 있다. 또 사고 발생시 공단 주변과 서남해안의 대형 해양 오염사고의 우려가 많았고 제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신규 업종의 입주가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이번에 입주 여건이 개선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이봉영 기자

완도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23억원 투입, 주민 우선 지원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완도군 보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완도군 전체 피해액은 31억7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길면의 경우 7억9천700만원으로 읍면 선포기준인 6억원을 초과해 지난 17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완도군도 전체 피해액이 24억원을 초과해 피해 우선 지구로 선정됐다. 피해액은 공공시설 20억3천600만원, 사유시설 11억4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복

구액은 111억9천800만원으로 공공시설 88억9천300만원 사유시설 23억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달31일 전남도로부터 3억 5천만원을 긴급 지원받아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태풍 피해로 깊은 시름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14억원을 포함한 23억5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 지역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장흥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개최 눈길

중앙로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 문화·테마거리 육성 한목소리

장흥군은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기 지역민과 공무원 100명이 머리를 맞댔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장흥읍 중앙로 도로·주차난 해소 방안 ▲인구감소 해소 방안 등을 안건으로 6개 분임 토론회를 거쳐 진행했다.

안전에 대해 쏟아진 다양한 의견은 다시 종합 요약해 발표하며 참가자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읍 중앙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도로, 보행로 설치 사업, 주차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참가자들은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문화와 테마가 있는 거리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인구감소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인구시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이 강조됐다.

정종순 군수는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게 됐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 검토 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흥=고병근기자

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추석前 지급

진도군은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시기를 고려해 12월 지급하던 쌀 소득보전직불금, 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지난 19일 지급했다.

군은 올해 가뭄, 폭염, 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2천885명에게 5천460ha에 대해 총 54억6천만원 규모다. 밭·조건직불금은 주요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평균 6천346명, 6천223ha에 대해 23억9천600만원을 지

급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불리한 지역 농업인에게 작년보다 5만원 인상한 60만원을 지급했다. 직불제는 시장개방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동진 군수는 “올 여름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 호우 등 각종 재해로 어려워진 농업인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을 앞당겨 지급했다”며 “한가위인 만큼 농사일은 잊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세상을 담는 시선의 업그레이드.

캐논 렌즈 캐시백 프로젝트

이벤트 기간 내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께 최대 67만원의 캐시백을 드립니다.

제품 구매 기간 2018.9.1(토) - 2018.11.25(일)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2018.9.1(토)-2018.11.30(금)

EF렌즈
(최대 5대까지 응모가능/동일 제품 제외)

· EF100-400mm F4.5-5.6L IS II USM	캐시백 150,000	· EF50mm F1.2L USM	캐시백 80,000
· EF16-35mm F2.8 III USM	캐시백 150,000	· EF24-105mm F4L IS II USM	캐시백 60,000
· EF35mm F1.4 II USM	캐시백 150,000	· EF16-35mm F4L IS USM	캐시백 60,000
· EF85mm F1.2 II USM	캐시백 120,000	· EF100mm F2.8 Macro IS USM	캐시백 60,000
· EF24-70mm F2.8 II USM	캐시백 100,000	· EF-S17-55mm F2.8 IS USM	캐시백 50,000
· EF85mm F1.4 IS USM	캐시백 80,000		

*자세한 사항은 캐논홈페이지 참조(www.canon.ci.co.kr)

광주캐논총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번지(임동5거리)

지점 **062)350-8397**
금호월드점 1층 139호(정문입구)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일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Cafe **rt GALLERY** **BOOK & ARTS CENTER** **HOTEL**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